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⑤:40 갈데까지 가보자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광장	④:00 여기는 브라질 준결승 〈네덜란드 VS 아르헨티나〉	④:00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 〈네덜란드 VS 아르헨티나〉	④:00 브라질 2014 준결승 〈네덜란드 VS 아르헨티나〉
⑦		50 인간극장		00 MBC뉴스투데이 50 MBC아침드라마 〈모두다 김치〉	05 모닝와이드 30 KBC 모닝와이드
⑧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10 팩트 10	00 국회 인사청문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5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레나		30 SBS 뉴스
⑪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45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재)	00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2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50 2014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00 MBC 정오뉴스 20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재)	00 SBS 12 뉴스 30 국회 인사청문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❶	30 뉴스 특급	00 강연 100℃		55 중계방송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❷	40 직언직설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후보토론회			00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 경선토론
❸	50 정용관의 시사병법	30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관보고〉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쥬로링 동물탐정(재) 55 TV유치원 콩다콩	30 MBC 경제 뉴스 40 헬로 키즈 아하! 지구탐험대2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❹	50 쾌도난마	55 튼튼 생활체조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비타민(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30 꾸러기 탐구생활
❺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❻	0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❼	20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뻐꾸기 둥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❽	20 부부극장 콩깍지(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밥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❾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❿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국제공동제작 KBS파노라마 〈위험한 생명 제3편〉 50 시사현장 맥	00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명처럼 널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⓫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5 별바라기	15 자기야-백년손님
⓬	20 카톡쇼S(재) ①:30 관찰카메라 24시간	30 인문강단 락(樂) ①: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올댓뮤직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다큐멘터리 3일(재) ①:3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어리 ①:10 우리가락 우리문화	35 나이트 라인 ①:05 매직아이 〈화통〉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장수의 비결(재)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07:00 곤(재)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잭과 팡(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How-만들어 볼까요
09:05 책갈피 요정 또보(재)
09:20 미술탐험대
09:35 아기 고릴라 둥둥
09:40 부모 〈생활백과〉
10:10 리얼토크 부부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 창장〉(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사이틴
13:2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3:30 고양이 파피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4:00 머털도사
14:30 코코몽2
14:45 곤
15:00 지구를 지켜라
15:15 마샤와 곰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15:45 바두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 〈레츠 고 파리〉(재)
16:20 우당탕탕 아이쿠
16:30 책갈피 요정 또보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꼬마버스 타요
17:30 로보카 폴리
17:45 두다다쿵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리얼체험 땅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세계의 중심, 에콰도르〉
21:30 한국기행 〈안동고택〉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장수의 비밀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00:50 〃 〈국어 II〉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02:30 〃 〈수학 II〉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4:10 〃 〈과학〉
05:00 〃 〈한국사(하)〉(재)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07:30 2014 포스 〈문학 II〉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09:10 〃 〈수학 II〉(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11:4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2:10 5분 과탐·지구과학 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14:00 〃 〈국어 B형〉
14:50 〃 〈영어 1〉
15:40 〃 〈영어 2〉
16:30 〃 〈한국지리〉
17:20 〃 〈사회문화〉
18:10 〃 〈경제〉
19:00 〃 〈윤리와 사상〉
19:50 5분 과탐·지구과학 I (재)
20:00 EBS-N제 〈국어 B형〉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08:3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 1〉
10:30 〃 〈도덕 2〉
11:10 〃 〈국어③④〉
11:50 〃 〈영어 2〉
12:30 등업신공 〈사회 1〉
13:10 〃 〈역사 1〉
13:50 〃 〈역사 2〉
14:30 〃 〈사회 2〉
15:20 만점왕 〈과학 3-1〉
15:50 〃 〈과학 4-1〉
16:20 〃 〈과학 5-1〉
16:50 〃 〈과학 6-1〉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1〉(재)
17:50 스쿨랜드(재)
18:00 TV 중학 〈역사(하)〉
18:40 〃 〈사회 3〉
19:20 등업신공 〈역사(하)〉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회〉
20:40 〃 〈세계사〉
21:20 〃 〈한문〉
22:00 〃 〈수학〉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24:00 EBS 역사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음 6월 14일 壬午)

子 36년생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 48년생 기색이 보이면 즉시 조치하자. 60년생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72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4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91, 39

丑 37년생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49년생 사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가 있느니라. 61년생 반드시 근거를 남겨 두자. 73년생 손쉽다. 85년생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95

寅 38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50년생 상호 관련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감안하고 있어야겠다. 62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로다. 74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5, 32

卯 39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51년생 주체적 관념이 유익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국량이다. 63년생 소망 했던 바를 이루리라. 75년생 상대의 배려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59

辰 40년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리하도다. 52년생 불완전 할 때는 고쳐서 쓰면 그만이다. 64년생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76년생 주장한다면 상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80

巳 41년생 사실 그대로만 인식해야 한다. 53년생 제게 딸린 것을 잘 살피고 돌보아야 할 것이로다. 65년생 아예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77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1, 77

午 42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야만 후유증이 없다. 54년생 평소에 항상 드나드는 곳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세밀한 시각으로 정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신 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54, 43

未 43년생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이가 있을 수다. 55년생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 하자. 67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79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춰지니 길상이로다. 행운의 숫자 : 44, 36

申 44년생 조만간에 결말이 날 것이다. 56년생 일시적 판국이니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68년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80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줄렁줄렁 매달려 있다. 행운의 숫자 : 12, 67

酉 45년생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57년생 역동적인 실행과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69년생 처신만 잘 한다면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날이니라. 81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펼치자. 행운의 숫자 : 70, 19

戌 46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차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58년생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70년생 옛 것으로부터 행운이 따를 수다. 82년생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8, 28

亥 47년생 단안을 내릴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자. 59년생 본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71년생 불가피하다면 강제로라도 실행해야 한다. 83년생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4,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정수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짝사랑'"

tvN 월화극 '고교처세왕' 정수영 役 이하나

"혹시 짝사랑해보셨나요? 지난 몇년 쉬는 동안 깨달은 게 있는데 짝사랑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달라요. 세상에…짝사랑을 안 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수영과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짝사랑을 하는 점이에요. 그 점은 정말 닮았어요. 그게 이 배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하나(32)가 생각하는 정수영과 자신의 공통점은 바로 짝사랑이었다.

tvN 월화극 '고교처세왕' 속 정수영이 가슴 속 깊이 키워온 유진우(이수혁 분) 본부장에 대한 혼자만의 사랑은 정수영이 사는 힘이자, 이하나가 정수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부스스한 머리, 큰 뿔테 안경, 구부정한 자세와 잠에서 덜 깬 듯한 표정.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맥없이 순진하며, 눈치가 없어 혼자만의 착각에도 잘 빠지는 대기업 계약직 사무원 정수영은 이하나를 만나 3D 입체화면을 보는 듯한 생동감을 얻고 있다.

"평소 대차지만 기분 좋게 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죠.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 보고 연구하게 되죠. 그들의 모습을 자꾸 분석하게 되니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제 연기의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또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애교가 많고 귀여운 분이라 엄마를 생각하며 연기를 해요. 뿔테안경도 엄마의 20대 모습을 떠올리면서 산 거랍니다. 제 실제 성격은 정수영과 많이 달라요."

실제로는 자신과 다른 정수영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는 설명. 그런데 그런 정수영이 이하나와 닮은 중요한 포인트가 짝사랑이라는 것이다.

"아직 방송이 안됐지만 며칠 전 정수영이 '이제 유 본부장님과도 끝이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었어요. 제가 원래 눈물연기를 못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서 눈물을 그치느라 혼이 났어요. 그 연기를 하면서 짝사랑하는 정수영의 심정에 제가 감정이입을 깊이 했다는 것을 알게됐죠. 짝사랑을 안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음식, 혈액형 등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그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혹시 짝사랑을 해봤냐'고 묻고 있더라. 그게 최근 1~2년 사이 변화된 내 모습"이라고 말했다.

순수하고 '착해빠져서' 너무도 만만한 정수영을 위해 이하나는 촬영 전 6kg을 감량했다.

"바보 같은 캐릭터를 표현하려면 빼빼 마른 모습이 나을 것 같아서 좀 뺐다"는 그는 "군기가 바짝 들어간 친구라고 생각해 군대 말투를 녹여냈는데 귀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웃었다.

그는 정수영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지만 정수영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 너무 창피해요. 사고방식도 남다르고 눈치도 없어서 혼자 착각에 빠져있잖아요.(웃음) 그런데 그런 정수영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정수영이 술주정하는 연기를 모니터하면서 문득 '아, 나도 정말 편한 사람과 술을 마실 때는 저런 모습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수영은 누구한테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쉬운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는 건데, 정수영은 그런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술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웃음)"

'고교처세왕'에서는 정수영의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다. 대충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패션이 여성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그동안은 옷을 잘 못입는다는 이미지도 강했거든요. 제가 평소 옷을 많이 사지는 않아도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편인데 항상 의상 논의 과정에서 제 의견이 밀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과 정말 잘 맞는 스타일리스트를 만나서 둘이 완전히 의기투합해 옷을 골랐어요. 극중 의상의 절반 이상을 광장시장에서 구입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름치마, 귀여운 블라우스, 스카프 등 이번 연기를 하면서 예쁜 옷을 원없이 입고 있어요."

2년여의 공백을 거쳐 연기를 재개한 이하나는 "연기를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면서 "연기가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촬영장에 가는 게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별그대' 장태유 PD 中서 영화감독 데뷔

SBS 휴직…내년 개봉 목표로 준비 중

중국 대륙을 뒤흔든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연출자 장태유(42·사진) PD가 중국에서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장 PD는 9일 "중국 쪽으로부터 영화 연출 제안을 받고 고민을 거듭하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1일자로 SBS를 휴직했으며, 휴직 기간은 2년이다.

장 PD는 "중국 쪽으로부터 로맨틱코미디 영화 연출 제안을 받았고 아이템도 그쪽에서 제시한 여러 개 중 하나를 골라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베이징으로 건너가 영화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며 "내년 5월이나 9월께 개봉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작업에 한국 스태프도 일부 참여하며, 출연배우 중에서도 일부는 한류스타를 캐스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장 PD는 "중국과 일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조심스럽다"며 "작업을 하다가 잘 안될 수도 있고 어떤 난관이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조용히 작업하다 영화 개봉할 때쯤 알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1998년 공채 7기로 SBS에 입사한 장 PD는 '쩐의 전쟁' '바람의 화원' '뿌리깊은 나무'를 잇달아 히트시키며 스타 PD로 자리잡았고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한류스타 감독'으로 떠올랐다.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연출자인 그에게도 대륙발 각종 러브콜이 쏟아져들어왔다.

장 PD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고 지난 4월부터 많은 고민을 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도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처음이라 중국을 배워보자는 생각에 그쪽에서 제안하는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지만 이번 작품이 성공해서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로 중국 시장에서 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지창·김원준 "공동 곡작업 중…듀오는 아직"

소속사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검토중"

1990년대 스타로 현재 각자 사업과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손지창(44)과 김원준(41)이 함께 신곡 발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손지창의 소속사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분이 워낙 절친한 관계다. 현재 공동 곡작업에 착수해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듀오 형태로 팀을 결성해 활동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원준의 소속사 후너스 크리에이티브 관계자도 "함께 곡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사석에서 나오면서 두 분이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노래나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손지창은 '마지막 승부', '느낌' 등 인기 드라마와 듀오 '더 블루'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다. 전성기 시절이던 1998년 배우 오연수와 결혼했으며 2005년 TV드라마 '영웅시대' 이후 사업에 집중하려고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가 2009년 김민종과 재결합해 '더 블루'의 새 앨범을 발표했다.

김원준은 1992년 '모두 잠든 후에'로 데뷔해 '짧은 다짐', '쇼' 등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잘생긴 외모로 주목을 받으며 연기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